광주은행, 남구청 금고 되찾아…광주·전남 금고지기 '우뚝'

광주 전역 지자체 전담 은행 맡아…전남 18개 시·군 금고 담당
송종욱 은행장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금고지기 역할 최선"

송종욱 은행장

광주은행이 광주 남구청 1금고를 담당하게 되면서 광주 전역 지자체 금고지기 역할을 맡게 됐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서는 18개 시·군 금고를 담당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내년부터 4년 동안 광주 남구청 1금고 일반회계 전담은행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서 광주은행은 3년 만에 금고 담당을 되찾게 됐다. 지난 2019~2021년에는 국민은행이 남구 금고(단수)를 운영해왔다.

남구는 내년부터 1·2금고를 나눠 운영하면서 광주은행은 1금고 일반회계를 담당하며 1500억원 규모를 운영하게 된다.

광주은행은 이번 선정으로 광주시와 5개 구 금고 전담은행을 맡게 됐다. 지난해에는 33년 만에 광주 광산구 금고 담당에 선정되기도 했다.

59년 만에 목포시 금고에 선정되고, 6년 만에 순천시 금고 전담은행 자격을 되찾으면서 전남 지역에서는 18개 시·군 전담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자체 금고를 운영하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중소기업과 중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260억원을 출연하며 3대 주주로 나섰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순천사랑통장' '화순사랑통장' '신안1004통장' '땅끝해남통장' 등을 잇따라 출시했다.

이들 상품 수익금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부되며 2018년 출시한 '광주·전남애(愛)사랑카드'를 통해서는 1억2900만원(2018년), 2억9500만원(2019년), 2억9600만원(2020년) 등을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했다.

송종욱 은행장은 "광주은행을 믿고 신뢰하며 지역살림을 맡겨준 광주 남구와 지역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금고지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민과 동행·지역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통합RPC '동림동 시대'…연간 쌀 1만t 처리

시간당 5t·친환경 1.5t 가공·저장
쌀겨 7할 깎아낸 '7분도미' 출시도

광주시 남구 대촌동에서 광산구 동림동으로 이전·증축한 광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광주통합RPC).

광주 14개 지역농협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광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광주통합RPC)이 지난 12일 준공했다.

남구 대촌동에서 광산구 동림동으로 이전한 통합RPC 시설은 광주지역 쌀 35%를 가공·저장·유통하게 된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이날 오전 광산구 동림동에 신축한 통합RPC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이번 준공은 지난 2019년 10월 이전부지가 확정된 이후 2년 만이다. 지난 2008년 1월 개소한 기존 통합RPC 부지가 에너지밸리 산단에 편입되면서 13년 만의 이전·증축을 단행했다.

새로 조성된 통합RPC는 부지면적 1만5389㎡(4655평), 건축면적 8858㎡ 규모다. 국비 12억5600만원·시비 6억2800만원을 확보하고 14개 농협이 83억4400만원을 공동 출자하며 사업비 102억2800만원을 들였다.

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갖춰 정곡 기준 일반쌀은 시간당 5t, 친환경 쌀은 시간당 1.5t을 가공·저장할 수 있다. 기존(대촌)보다 가공은 시간당 1.5t, 가공·저장 능력은 1000t 향상됐다. 연간 도정능력은 1만400t(1일 52t)에 달하며, 건조능력 9000t(1일 150t), 저장능력은 7000t이다.

이 시설은 신규 사일로(저장고) 8기를 포함해 500t 규모 사일로 12기, 평창고 1동(660㎡), 30t 규모 건조기 5기, 투입구 3기 등을 갖췄다.

모든 공정은 원격제어시스템으로 한 눈에 관리·조율할 수 있다. 도정한 쌀을 포장하고 팰릿에 쌓는 과정은 로봇자동적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10㎏ 들이 100개를 포대에 넣고 팰릿에 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여 분이면 충분하다.

숙원이었던 광주통합RPC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쌀값 하락에 따른 경영비 부담은 14개 조합 모두의 숙제로 남았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한 올해 추곡수매는 이날 기준 4400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 가량 많은 양이다.

올해 광주 쌀 생산량은 2만4285t으로, 지난해(2만2700t)보다 7.0%(1585t)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역 14개 농협은 광주 대표 농산물 브랜드 '빛찬들'을 내건 이달 중 '7분도미'(七分度米), '5분도 현미'를 새로 내놓으며 쌀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쌀 상품으로는 무농약 친환경 '빛찬들 쌀'과 '무등산 쌀' 등이 있다.

7분도미는 현미를 도정할 때 쌀겨 부분의 7할을 깎아 낸 쌀로, 비타민 B1 등 영양분이 일반 백미(8분도)보다 13배까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형구 본부장은 "광주통합RPC가 현대화 가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원료곡 보관 및 도정에 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광주 빛찬들 브랜드 쌀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무안 남악신도시에 '힐스테이트 오룡' 분양

견본주택 오픈…2024년 입주예정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 오룡'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오룡'은 42블록 지하 1층~지상 24층 482세대와 45블록 지하 1층~지상 20층 348세대 규모로, 전 세대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타입별로는 42블록 ▲84㎡A 119세대 ▲84㎡B 238세대 ▲84㎡C 125세대, 45블록은 ▲84㎡A 265세대 ▲84㎡B 55세대 ▲84㎡C 28세대로, 2024년 5월 입주예정이다.

단지는 오룡지구 핵심 인프라를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했다는 게 장점이다. 인근 남악JC를 통해 서해안·남해고속도로 를 비롯해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앞 상업지구가 계획돼 있고, 아울렛과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또 남악신도시에 처음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인 만큼 상품성을 갖춘 단지로 선보일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 대비 가격경쟁력도 확보했다. 남악신도시가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에서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자면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청약홈을 통해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1일로 계약은 13일~18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힐스테이트 오룡' 견본주택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88번지에 마련됐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해야 방문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ICT사업 전시회서 306만달러 추가 계약

한국광산업진흥회 상담 지속
네온포토닉스 등 계약 체결 도와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최근 해외전시회 이후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306만 달러의 추가 계약체결을 성사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진흥회는 지난 9월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유럽 최대 광ICT산업 전시회 'ECOC 2021'에 한국 기업 11개사와 함께 공동관에 참가해 국내 광네트워크 기반 제품 등을 홍보하고 현지 바이어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등 유럽지역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당시 전시회를 통해 참여기업 11개사가 2637만 달러의 수출계약 상담을 진행했고, 4개사의 경우 광케이블 접속함 및 광케이블 등 140만 달러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이후 해당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참가기업인 ㈜네온포토닉스 등 5개 기업은 진흥회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지속 추진, 총 306만 달러(약 36억원)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진흥회는 국내 광융합산업 기업과 함께 매년 ECOC 전시회에 한국 대표로 공동관 부수를 마련, 지속적인 해외수출 판로확대에 기여하는 등 기업들의 실직적인 성과와 매출액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용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큰 상화에서 국내 광통신기술의 우수성을 현지 바이어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기업 매출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회는 각종 해외전시회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바이어들을 다음달 24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2021 광융합산업로드쇼'에 초청해 추가적인 기업들의 수출상담 기회를 마련하는 등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
■ 건 물 : 411 ㎡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상담 010-3733-3933